

순천 제조·비제조업 80% 영세 개인사업체

'순천시 경제지표' 전남 첫 공표 저금리 지원·임대료 인하 필요 업계 전망 제조업 "좋아질 것" 비제조업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

순천지역 제조·비제조업의 80%가 영세한 소규모 개인사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전망에 대해서는 제조업의 경우 비슷하거나 좋아질 것으로 응답한 반면 비제조업의 경우 대부분이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순천시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제조업과 비제조업 사업체의 경영상황 등을 조사한 '순천시 경제지표'를 전남 지자체 최초로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경제지표는 지난 5월 7일부터 6월 3일까지 순천시에 소재한 1000개의 표본사업체(제조업 394개, 비제조업 606개)를 대상으로 일반현황, 사업장 이전계획, 인력현황, 경영현황, 업종 및 전망 등 5개 부문 62개 항목에 대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사업체 조직형태는 제조업 88.6%, 비제조업 78.9%가 단독사업체로 소규모 개인사업체 중심이었다. 종사자 규모는 제조업의 59.1%, 비제조업의 45.9%가 1~4인 이하 규모였다.

사업장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계획은 제조업의 97.7%, 비제조업의 96.5%가 이전계획이 없으며, 사업장 유지에 가장 필요한 사항은 제조업 22.2%와 비제조업 47.6%에 모두 임대료 인하를 꼽았다.

기업을 운영하는 순천시의 장점은 제조업 32.6%와 비제조업 34%가 편리한

교통여건과 판매시장 접근을 꼽았다. 인력현황은 제조업의 55.1%가 생산직이며, 비제조업은 66.9%가 상용직이었다.

특히 제조업의 23.4%, 비제조업의 21.6%가 생산직 또는 임시일용직을 고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대비 경영현황에 대해 제조업은 매출이 12.1%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5.3%가 증가한 반면, 비제조업은 8.5%의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이 35.2% 정도 준 것으로 조사돼 비제조업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67.9%, 비제조업의 73.9%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현황 및 전망에서는 제조업 53.9%, 비제조업 45.2%가 업황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제조업 55.5%가 비슷하거나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반면 비제조업의 91.6%가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도움이 필요한 분야는 제조업은 저금리 자금대출 지원 26.9%, 지방세 감면 19.2% 순이며, 비제조업은 인건비 지원 17.1%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하기 좋은 도시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제조업 70.1%, 비제조업 73.8%가 보통이거나 동의한다라고 조사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매 2년마다 통계청과 협업해 '경제지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장기적인 지역경제 상황 파악과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방향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낙안면 종합복지센터 부지 주민투표 기존 후보지인 동교저수지 인근 결정

순천시 낙안면 종합복지센터가 주민투표 끝에 기존 후보지인 동교저수지 인근 부지로 결정됐다.

최근낙안면 종합복지센터는 검립 위치, 부지 방식과 관련해 주민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

올해 초 면장의 마을별 현장 간담회에서 대다수 마을이 건의할 정도로 낙안면민에게 종합복지센터 건립은 숙원사업이었다.

순천시 대부분 읍·면에는 복지회관이나 체육관, 전천후 게이트 등 시설이 있지만 낙안면에는 별다른 복지·편의시설이 없어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낙안면은 앞서 지난 2월부터 수차례 주민간담회와 이장협의회 등을 거쳐 검립부지 선정회의에 상정된 8곳의 후보지 중 동내리 일원을 지난 7월 선정했다.

하지만 동내리가 선정되자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기 시작했다.

선정부지가 저수지 아래에 위치해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저수지는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나 간단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다.

이에 허석 순천시장이 직접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 방식인 주민투표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것을 제안했고 '낙안면 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 결정'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된 것이다.

주민 투표는 공무원과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별 주민투표 모습.

투표 관리요원들이 9개조로 편성돼 지난 2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역 36개 마을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민 투표권자 총 3067명 중 1535명(50%)이 투표에 참여, 821표(53.5%)를 얻은 동내리 21-91번지(동교저수지 인근)가 최종 부지로 확정됐다.

낙안면 종합복지센터는 마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했으며 지난 9월 생활SOC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3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이다.

주민투표로 검립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내년 2월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1년 6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면적 1300㎡ 규모로 1층에는 주민공유공간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실을 배치하고 2층은 문화체육공간과 다목적 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만국가정원·습지 입장료 감면 확인 간소화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의 입장료 감면 확인이 간소화된다.

순천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관람객이 직접 입장료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과 순천만국가정원 입장권시스템이 연계돼 매표소에서 간단한 본인 확인만으로도 감면이 가능해진다.

시의 적극적 행정 서비스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로 인해 각종 서류를 발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이 가 아닌 데이터로 자격 여부를 확인,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에 부담도 줄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에서는



앞으로 간단한 본인 인증만으로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의 입장료 감면을 확인할 수 있다. 순천만습지 입구.

이달부터 시범 운영적으로 운영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감면대상자들

이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관람객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5년 연속 50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명소가 우리나라 제1호 국가정원의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순천=차성환 기자 csh@kwangju.co.kr

순천시민 지적도·토지대장 등 쉽게 확인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개선 완료

순천시가 시민들이 지역의 기본적인 지리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개선에 따라 지적도와 로드뷰를 비롯해 병원, 약국, 주차장 등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상의 기본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어 시민 실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스템 개선은 보안프로그램인

'액티브X'를 설치할 필요없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과 타기관 공간정보 시스템과 연계체제를 확보해 공간정보 분석 및 검색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시민들의 생활편의 뿐 아니라 시 공무원들의 업무 활용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시는 효율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해 실무부서의 개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사업대장을 탑재함으로써 행정처리 효율을 높였다.

기존 도로, 상수, 하수 시설물 등 주요



공간정보와 단위 업무별 공유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기반 시설물 관리 체계를 확충해

실시간 정보 교류를 통한 부서 스마트 행정 구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신속·정확한 대민서비스 처리능력을 향상시켰다는 설명이다.

나용준 순천시 토지정보과장은 "개선된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을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 원하는 지리정보를 편하게 얻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시스템에 적용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순천=차성환 기자 csh@kwangju.co.kr

영국왕립원예협회 자격교육 3명 최종 합격

순천시는 영국왕립원예협회 자격교육을 통해 3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사진>

시는 지난해 6월 순천만국가정원에 영국왕립원예협회(RHS)로부터 영연방 국가를 제외한 해외 최초 국제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아 10개월간 'RHS Level 2 정원원예전문 자격(식물성장·번식·생육)' 교육 과정에 25명을 선발·운영했다.

영국왕립원예협회는 세계적으로 90여 개의 교육기관을 보유하고 첼시플라워쇼를 주관하는 등 정원문화와 산업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단체다.



이천식 순천시 정원산업과장은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해외인증 정원교육 과정을 도입해 국가정원이 정원교육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7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순천=차성환 기자 csh@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